

# 자발화에 나타난 구문구조 발달 양상\*

장진아(나사렛대), 김수진(나사렛대), 신지영(고려대), 이봉원(나사렛대)

## <차 례>

- |                    |                         |
|--------------------|-------------------------|
| 1. 서론              | 3.2. 기본문형의 분석           |
| 2. 연구방법            | 3.2.1. 연령에 따른 기본문형의 사용  |
| 2.1. 연구자료          | 3.2.2. 제1문형의 하위유형 분석    |
| 2.2. 자발화 수집방법 및 절차 | 3.3. 복합문 분석             |
| 2.3. 분석방법          | 3.3.1. 연령에 따른 복합문의 분석   |
| 3. 결과              | 3.3.2. 연령에 따른 접속문의 의미유형 |
| 3.1. 단문과 복합문의 분석   | 3.3.3. 연령에 따른 내포문의 유형   |
|                    | 4. 결론 및 제언              |

## <Abstract>

### A Study on Syntactic Development in Spontaneous Speech

Jin-A Chang, Sujin Kim, Jiyoung Shin, Bongwon Yi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syntactic development of Korean by analysing the spontaneous speech data. Thirty children(3, 5, and 7-year-old and 10 per each age group) and 10 adults are employed as subjects for this study. Speech data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in orthography. Transcribed data are analysed syntactically: sentence(simple vs complex) patterns and clause patterns(4 basic types according to the predicate) etc.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simple sentences show higher frequency for the upper age groups, 2) complex sentences with conjunctive and embedded clauses show higher frequency for the upper age groups.

\* Keywords: Spontaneous speech, Syntactic structure, Syntactic development, Sentence type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A00107)

## 1. 서론

문장의 통사적 구조는 2세에서 3세를 전후하여 발달하기 시작하여 5, 6세를 거치면서 성인언어의 형식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며[1], 청소년기에 이르면 거의 성인문법과 일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2]. 3세 아동들은 3단어 조합을 활발하게 구성하며 내포절이 포함된 문장을 사용하는 등[3] 서술어 중심의 문장 구조 특성을 보여준다. 서술어 중심의 구조가 형성되는 이 시기부터 문장 구조의 발달이 거의 완성된다고 알려진 학령기 이전까지의 아동이 보이는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문장의 유형 및 구조의 발달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성인언어와 비교할 수 있다면, 한국어 구문구조 발달의 지표는 물론 장애아동의 통사적 능력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구문발달에 대한 연구는 크게 종단연구[4] 및 횡단연구, 3세 이전 아동에 대한 초기문법발달·학령기까지의 중기문법발달·청소년기까지의 후기문법발달연구, 그리고 구어와 문어에 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문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가장 초기에 적용 가능한 것은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이지만 4세 이후의 통사적 발달을 보여주는 못하므로 주로 용언이나 문법형태소의 출현 양상이 구문발달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전체 발화에서의 용언의 산출비율[5]이나 연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연구[6] 등이 그 예이며, 접속 및 내포 등 복합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동의 구문발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언어발달의 전반적 과정이 아닌 제한된 시기를 대상으로 하거나, 문장구조의 발달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간접적 지표를 사용하였거나, 연결어미·전성어미와 같은 개별적인 단위의 분석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문장의 전반적인 실현 양상을 문형과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언어발달 연구는 언어발달의 목표로 볼 수 있는 성인언어의 문법적 특성과의 비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성인기의 언어 사용양상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에 대한 연구들은 문어 자료에 대한 구조 분석에 한정되어 구어의 특성을 충실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국어의 통사적 능력에 대한 발달지표를 탐색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3세, 5세, 7세 아동의 구어 자발화를 녹음하고 전사하여 구문발달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모국어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 자발화의 구문 특징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문발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장의 필수 성분에 따른 기본 문형의 출현 수와 문장 확대 방법의 실현 빈도를 측정하였는데, 문장의 분석 기준은 학교문법을 틀을 근간으로 한 [7], [8]을 따랐으나 일부 세부 기준은 연구자가 조정하였다<sup>1)</sup>. 구어의 경우 문장성분의 생략 또는 비실현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이러한 생략형을 별도의 문형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서술어를 중심

으로 기본 문형을 설정하였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3세(3;1~3;11세), 5세(5;1~5;11세), 7세(7;1~7;11세) 아동과 20대 성인(20~29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령집단의 남녀 성비는 1:1이었다. 피험자 수는 각 연령마다 10명씩이고 총 피험자는 40명이었다. 아동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며 부모나 교사들이 인지, 감각, 정서, 사회성, 행동, 언어적 측면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아동으로 한정하였으며, 성인들은 모두 대학생이었다.

### 2.2. 자발화 수집 방법 및 절차

자연스러운 자발화 수집을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되었다. 학령 전 아동은 1) 사진을 이용한 과거 경험 이야기하기 2)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꿉놀이 3) 그림책을 이용한 이야기 말하기 등을 통해, 성인은 1) 사진을 이용한 과거 경험 이야기하기 2) 책이나 영화를 이용한 이야기하기 3) 일상생활(예: 학교, 가정)에 관한 이야기하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병리학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자발화를 수집하였다.

자발화 자료는 녹화 후 1-2일 내에 철자 전사하였으며, 각 아동에게서 50-60분 동안 자발화를 수집하고 개시 부분에 나타난 다소 어색한 대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세 가지 상황 각각에서 가장 앞 부분의 다섯 발화정도를 배제하였고, 자발성을 잃고 모방에 의해 만들어진 아동의 발화 등은 제외한 후, 서술어가 포함된 발화를 표집하였다. 세 가지 상황에서 표집된 발화 문장 120개씩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된 총 문장 수는 4800개이다.

문장유형과 구조는 서술어에 따라 결정되므로 서술어가 실현되지 않은 발화는

- 1) 예를 들어, 보어의 경우 학교문법의 처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되다/아니다’ 앞에 오는 필수성분만을 보어로 인정하고, 필수적 부사어는 보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세 자리 서술어를 염두에 둔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문형의 경우, 학교문법과는 달리 서술어가 목적어 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하나 더 있을 때 이를 보어로 보았다. 따라서 이를 학교문법의 보어와 구별하기 위하여 목적보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다만 이 경우 필수성분은 서술어의 개별적 특성이므로 판단에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필수성분을 다 보어로 인정하지 않고 여격과 인용격 조사가 오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술어가 단독으로 산출된 경우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수집, 전사된 자발화 자료의 문형과 구문구조는 제1연구자와 다른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 1인이 각기 코딩하고, 일치하지 않은 문장은 모두 국어학자인 제4연구자가 참여하여 토론을 거쳐 100% 모두 동의한 형태로 자료를 입력하였다.

### 2.3. 분석방법

발화의 구분 및 분석 대상 발화의 선정은 [9], [10]의 기준을 따랐다. 문장은 서술어의 수에 따라 단문과 복합문으로 나누고 단문은 필수성분의 종류 및 서술어의 하위유형에 따라 기본문형[11]을 설정하였다. 제1문형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지며 다시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주어-체언+이다, 주어-서술어(자동사), 주어-서술어(형용사), 주어-필수부사+서술어로 분류하였다. 제2문형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제3문형은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된다. 제4문형은 주어, 목적어, 목적보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한다(<표 1> 참조).

<표 1> 기본문형의 유형 및 발화 예

문형	발화 예
1문형 주어+서술어	이거 책상이네 (3세) 우리 책상이 도서실이야 (성인)
2문형 주어+목적어+서술어	김치 먹어 (3세) 짜둑짜둑 뒤편 자를까 (5세)
3문형 주어+보어+서술어	인어공주가 인어 돼서 (5세) 아웃이 되지요 (7세)
4문형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용가하라고 엄마한테 줬어 (3세) 그거는 방이라고 할 수 없지 (성인)

복합문은 [7]에 따라 접속문, 내포문으로 나누되, 접속과 내포가 동시에 실현되는 문장을 따로 접속문+내포문의 복합유형으로 정하였다. 이 때 접속문은 <부록 1>과 같이 연결어미의 의미적 유형2)에 따라 분류하고, 내포문은 문장이 절의 형태로 다른 문장 속에 안겨 있는 것으로, <부록 2>와 같이 포함된 성분절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2) 연결어미는 크게 대등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 구분 역시 통사적 차이이기보다는 의미론적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접속문의 분류는 연결어미의 의미적 유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고에서도 의미적 기준에 따라 접속문을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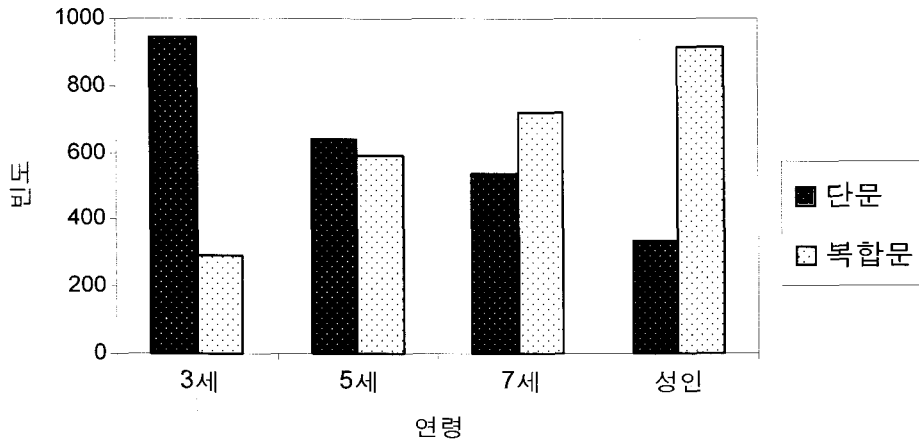
### 3. 결과

#### 3.1. 단문과 복합문의 분석

문장에서 서술어가 수행하는 서술기능을 중심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일어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단문과 복합문으로 나눈 결과는 <표 2> 및 <그림 1>과 같다.

<표 2> 연령에 따른 단문과 복합문의 산출빈도 및 비율

연령 문형	3세	5세	7세	성인	합계
단문	945(76)	644(52)	539(43)	336(27)	2464(49)
복문	292(24)	590(48)	722(57)	915(73)	2519(51)
합계	1237(100)	1234(100)	1261(100)	1251(100)	4983(100)



<그림 1> 연령에 따른 단문과 복합문의 산출빈도

총 4,800개의 분석 대상 문장에서 단문과 복합문의 빈도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문의 빈도는 감소하고 복합문의 빈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단문과 복합문의 비율을 살펴보면, 3세에서 단문과 복합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6%, 24%이며, 이후 5세와 7세에서는 약 절반 수준으로 그 비율이 비슷해지다가 성인의 자발화는 단문이 27%, 복합문이 약 73%를 차지하였다. 아동은 간단한 구조를 가진 단문을 주로 사용하다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조가 복잡한 복합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문과 복합문의 비율은 연령에 증가함에 따라 역전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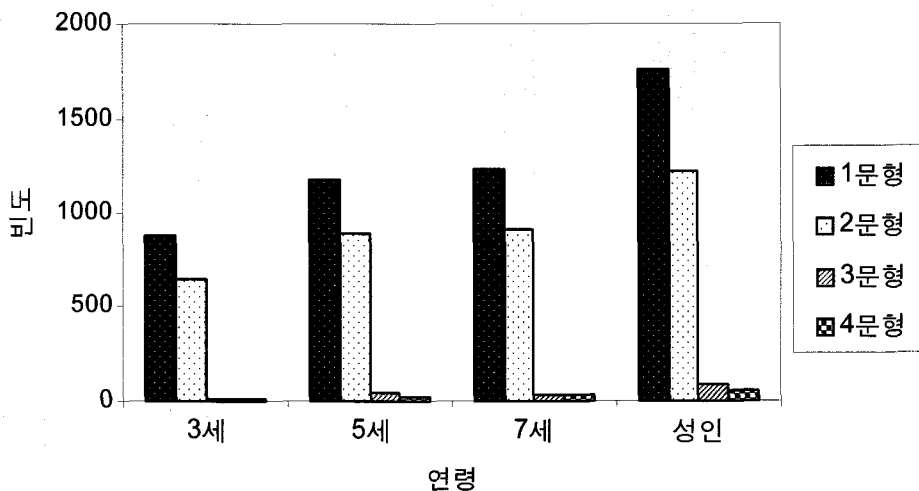
### 3.2. 기본문형 분석

#### 3.2.1. 연령에 따른 기본문형의 사용

각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종류에 따라 기본문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이 경우 복합문에 포함된 단문도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접속문의 경우 종속절과 주절이 각각 문형으로 빈도에 포함되므로 복합문을 많이 사용한 성인들의 문형 출현 빈도는 발화 문장 수를 훨씬 더 넘게 된다.

<표 2> 연령에 따른 기본문형의 산출빈도 및 비율

연령 문형	3세	5세	7세	성인	합계
1문형	873(57)	1180(55)	1234(56)	1760(57)	5047(56)
2문형	617(40)	881(41)	893(41)	1211(39)	3602(40)
3문형	11(1)	41(2)	24(1)	80(3)	156(2)
4문형	34(2)	27(1)	50(2)	55(2)	166(2)
합계	1535(100)	2129(100)	2201(100)	3106(100)	8971(100)



<그림 2> 연령에 따른 기본문형의 산출빈도

연령에 따른 기본문형의 산출빈도는 <표 2> 및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전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기본문형은 제1문형(주어+서술어)과 제2문형(주어+목적어+서술어)이며 이 두 문형들의 산출비율의 합은 모든 연령에서 9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3문형과 제4문형은 매우 제한적으

로만 사용되었다.

연령에 따른 제1문형과 제2문형의 산출빈도는 3세에서 5세 사이, 그리고 7세에서 성인 사이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였고, 5세에서 7세 사이에는 그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제1문형의 산출비율은 약 56% 내외로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제2문형의 산출비율도 약 40% 내외로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했다. 이와 같이 문형별 산출빈도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지만 전체문장에서의 문형별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제3문형과 제4문형은 전 연령대에서 산출빈도와 비율이 각각 2% 내외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다.

### 3.2.2. 제1문형의 하위 유형 분석

앞에서 제시한 기본문형 가운데 제1문형은 다시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체언+이다’, ‘자동사’, ‘형용사’, ‘필수부사+서술어’의 네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령에 따른 제1문형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 및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전 연령에서 ‘주어+자동사’의 산출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다.

‘주어+자동사’의 산출빈도는 3세부터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5세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산출비율에 있어서는 3세부터 7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성인에 이르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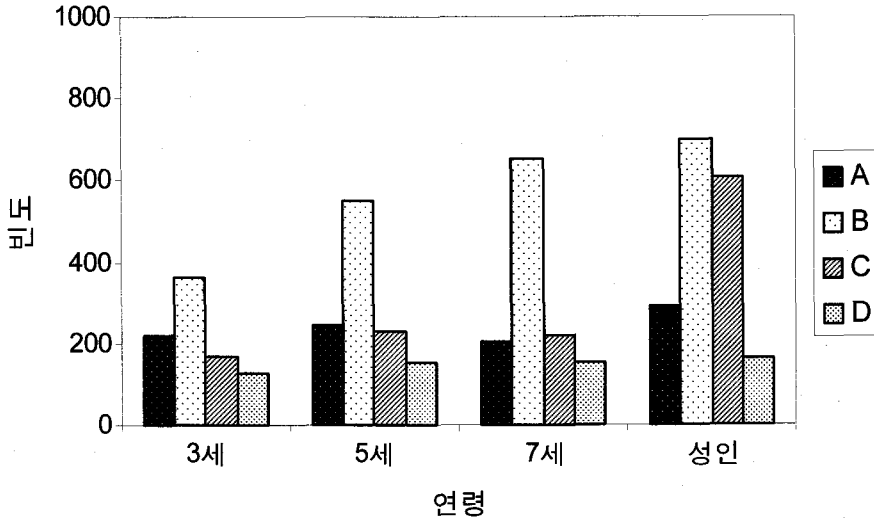
<표 3> 제1문형의 하위 유형 분석에 따른 산출빈도 및 비율

연령	3세	5세	7세	성인	합계
서술어 종류					
체언서술어	217(25)	244(21)	206(17)	293(17)	960(19)
자동사	362(42)	553(47)	655(53)	697(40)	2267(45)
형용사	166(19)	230(20)	218(18)	608(35)	1222(24)
필수부사+서술어	128(15)	153(13)	155(13)	162(9)	598(12)
합계	873(100)	1180(100)	1234(100)	1760(100)	5047(100)

‘주어+형용사’의 산출빈도는 3세부터 5세, 7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성인에 이르러서는 ‘주어+형용사’의 산출빈도가 3세보다는 5배, 5세와 7세보다는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산출비율 역시 3세에서 5세까지 증가하다가 성인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즉 전 연령대에서 제1문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은 ‘주어+자동사(B유형)’이지만, ‘주어+자동사(B유형)’의 비율은 성인기에 이르러 약간 감소하고, ‘주어+형용사(C유형)’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성인기에 이르러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어+체언+이다’의 산출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산출비율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어+필수부사+서술어’의 산출빈도는 5세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산출비율은 3세에서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성인에서의 비율은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낮았다.



A: 주어+체언+이다, B: 주어+자동사, C: 주어+형용사, D: 주어+필수부사+서술어

<그림 3> 연령에 따른 제1문형의 하위 유형의 산출빈도

### 3.3. 복합문 분석

#### 3.3.1. 연령에 따른 복합문의 유형

연령에 따른 복합문의 유형에 따른 산출빈도와 비율은 <표 4> 및 <그림 4>와 같다. 총 4,800개의 분석 대상 문장에서 연령에 따른 접속문의 산출빈도는 3세보다 성인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5세, 7세, 성인 사이에서는 접속문의 산출빈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접속문의 산출비율은 3세에서 성인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포문의 산출빈도 역시 3세와 5세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5세, 7세, 성인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접속문의 산출비율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포문의 산출비율도 점차 낮아졌다. 이처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한 접속문과 내포문의 산출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두 가지 문장 확장 방법이 모두 동원된 접속문+내포문의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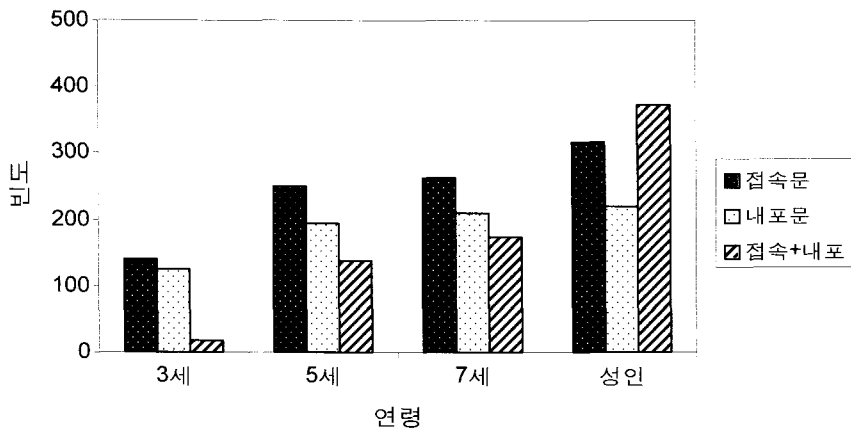
접속문+내포문의 복합유형의 산출빈도는 3세에서 5세 사이에서는 7배, 3세에서 성인 사이에서는 19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문+내포문의 산출



비율은 3세에서 성인 사이에 7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3세와 5세 사이에서 산출비율이 4배 정도 증가하였고, 7세와 성인 사이에서도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즉 5세 때 접속문+내포문의 복합유형이 크게 증가하며 성인에 이르러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이 된다.

<표 4> 복합문의 유형에 따른 산출빈도 및 비율

연령	3세	5세	7세	성인	합계
접속문	142(50)	249(43)	262(41)	315(35)	968(40)
내포문	126(44)	193(33)	209(32)	219(24)	747(31)
접속문+내포문	18(6)	138(24)	173(27)	371(41)	700(29)
합계	1237(100)	580(100)	644(100)	905(100)	2415(100)



<그림 4> 복합문의 유형에 따른 산출빈도

### 3.3.2. 연령에 따른 접속문의 의미유형

연령에 따른 접속문 의미유형의 산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접속문 중에서는 나열(23%)이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이유·원인(20%)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미 3세의 아동들도 다양한 의미유형의 접속문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5세에서는 나열, 이유·원인, 계기, 동시, 조건의 산출빈도가 높았고, 7세에서는 이유·원인, 계기, 나열, 기타의 산출빈도가 높았고, 성인에서는 나열, 이유·원인, 조건, 대립, 기타의 산출빈도가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주 산출되는 나열, 이유·원인의 접속문 외에 기타 접속문(양보, 설명, 목적, 결과, 선택, 전환, 의문, 비유, 비례)의 산출이 점점 증가하여 다양한 의미유형의 접속문이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 5&gt; 접속문의 의미유형에 따른 산출빈도 및 비율

연령 의미유형	3세	5세	7세	성인	합계
나열	34(21)	138(26)	103(17)	278(26)	553(23)
이유·원인	24(15)	99(18)	153(25)	187(18)	463(20)
동시	22(14)	61(11)	74(12)	78(7)	235(10)
계기	19(12)	83(15)	112(18)	74(7)	288(12)
대립	23(14)	50(9)	56(9)	109(10)	238(10)
조건	27(17)	57(11)	55(9)	165(16)	304(13)
기타	13(8)	48(9)	65(11)	170(16)	298(13)
합계	162(100)	536(100)	618(100)	1061(100)	2377(100)

‘나열’의 산출빈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산출비율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접속문의 의미유형 가운데 연령에 따른 증가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기타’(양보, 설명, 목적, 결과, 선택, 전환, 의문, 비유, 비례)의 산출비율이다. ‘기타’의 산출빈도를 살펴보면 성인은 3세에 비해 약 13배, 5세와 7세보다는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산출비율 역시 3세보다 성인에서 증가하였다.

### 3.3.3. 연령에 따른 내포문의 유형

내포문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명사절과 관형절의 산출빈도가 각각 883회, 574회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명사절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명사형 전성어미 ‘-것’(혹은 ‘-거’)의 사용이 많았기 때문이다<sup>3)</sup>. 인용절도 전체 연령의 내포문 유형에서 20%의 비율로 높은 산출빈도를 보였다.

명사절의 경우, 산출빈도는 3세에서 성인까지 약 5.4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5세, 7세에서 성인까지는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산출비율은 연령에 크게 상관없이 45% 정도를 차지하였다.

관형절은 산출빈도가 3세에서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산출비율은 내포절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인용절은 산출빈도가 3세보다 5세에서 3.5배 정도 증가하여 다른 연령 사이에서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5세, 7세, 성인의 산출빈도는 조금씩 증가하였다. 인용절은 내포문 중에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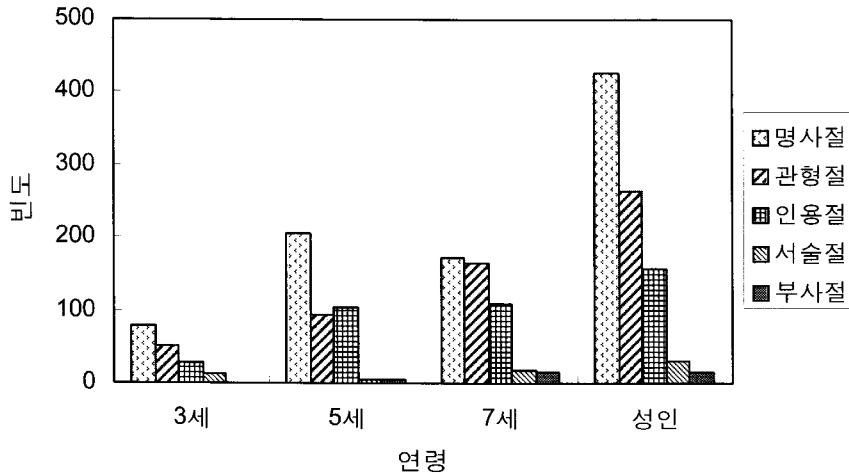
서술절과 부사절은 비교적 다른 내포문에 비해 낮은 산출빈도와 산출비율을 보였다. 서술절은 3세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나타났지

3)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에서는 의존명사 ‘것’을 포함한 성분절을 관형절과 의존명사의 결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것’ 구성은 구어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이루어진 명사절을 대체해서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7] 본 연구에서는 명사절로 처리하였다.

만, 3세에서 그 산출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사절의 경우 3세에서는 산출되지 않았고, 5세가 되어서야 산출하였는데 전 연령대에서 매우 낮은 빈도와 비율을 보였다.

<표 6> 내포문의 유형에 따른 산출빈도 및 비율

연령 \ 내포문	3세	5세	7세	성인	합계
명사절	78(46)	205(49)	173(36)	427(48)	883(45)
관형절	50(29)	95(23)	164(34)	265(30)	574(29)
인용절	29(17)	103(25)	110(23)	157(18)	399(20)
서술절	13(8)	6(1)	18(4)	30(3)	67(3)
부사절	0(0)	6(1)	14(3)	14(2)	34(2)
합계	170(100)	415(100)	479(100)	893(100)	1957(100)



<그림 5> 내포문의 유형에 따른 산출빈도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세, 5세, 7세 아동들의 구어 자발화를 수집한 뒤 구문발달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성인의 자발화에 나타난 문장 구조의 특징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말 구문구조의 발달지표를 구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장애아동의 통사적 능력의 진단과 지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3세에서 7세까지의 자발화 분석을 통해 얻은 아동 구문발달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합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복합문의 성장세는 성인기까지 지속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언어발달의 내재적 언어구조가 단문 구조에서 2개 이상의 복합문 구조로 발전해 간다는 것의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단문과 복합문의 비율은 3세에서는 단문이 76%, 성인에서는 복문이 73%로 완전히 역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결과는 문법적 발달 수준을 보기 위해서 단문과 복문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임상장면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둘째, 기본문형은 모든 연령에서 제1문형(주어+서술어), 제2문형(주어+목적어+서술어)의 산출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제3문형(주어+보어+서술어)과 제4문형(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의 빈도와 비율도 증가하여 성인이 될수록 다양한 문형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제1문형과 제2문형에 비해 제3문형과 제4문형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학교문법에 따라 해당 문형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였기 때문이지만 이 문형의 빈도가 연령에 따라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성인이 될수록 복잡한 구성의 문장을 구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잡도의 변화와 함께 기본문형의 수의 변화도 발달을 반영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문형의 수는 120발화에 포함되었던 절의 수이다. 발화에 포함된 절의 밀집도(clausal density)를 보여주는 것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한 발화 안에 보다 더 많은 절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발화를 먼저 의사소통단위(C-unit)로 나누고 이 단위 당 절의 수를 세어서 문법적 발달지표로 이용하고 있다[12].

셋째, 제1문형의 하위유형 분석에 있어서 아동의 경우 ‘주어+자동사’의 구조가 지배적인 형태였으나, 성인의 경우는 ‘주어+자동사’의 구조에 비견할 만큼 ‘주어+형용사’ 구조를 많이 사용하였다. 즉 ‘주어+형용사’의 사용은 문장발달의 세련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넷째, 복합문의 유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접속문과 내포문 각각의 산출빈도는 점점 증가하나 그 비율은 감소하면서 두 가지 복합유형의 비율이 더욱 증가해 성인에 이르면 복합유형의 비율이 전체 발화의 41%에 이르러 점차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져 구문체계를 정밀화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13]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내포문의 비중이 커진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복문을 접속문과 내포문 두 가지로 나누지 않고 내포와 접속 두 가지가 복합된 세 번째 복문의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이 유형이 연령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되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접속문의 의미유형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나열과 이유 원인의 의미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3세의 아동들도 이미 다양한 의미유형의 접속문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타’ 접속문도 다양하게 산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기타’의 접속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기타’유형의 접속문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하고 섬세한 언어적 표현 능력이 증가하는 것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유형 이외의 접속문의 사용비율은 연령의 증가와 긴밀

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문의 의미유형 가운데 나열을 제외한 유형들은 영어권의 연구[12]나 언어병리학 분야의 연구[14]에서는 부사절로 다루어진다. 이 연구들에서 부사절은 5세 이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접속문의 유형들은 연령에 따라 두드러지게 변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내포문의 유형에 따르면 명사절과 관형절은 모든 연령에서 고르게 사용되었으며, 인용절은 아동에게서는 산출비율이 높았으나 성인에서는 감소하였다. ‘것’을 명사절 혹은 관형사절로 보는 지에 따라서 연구결과들은 차이를 보인다. ‘것’이 포함된 내포절을 관형절로 본 연구에서는 관형절의 비중이 커지고[14], 본 연구와 같이 명사절로 본다면 명사절의 비중이 커진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문의 지표들은 국어문법에서 상용되고 있는 문법지표들로 학문들 간의 용어소통을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기준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어학과 국어교육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과 같은 관련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결과를 적용하거나 비교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장의 유형과 구조의 분석 기준을 수정한 학교문법에 두고 분석한 것은 이 연구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다. 연구에서 채택한 이 체계는 실제 구어의 분석에는 한계가 많았다. 구어의 문법적 분석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이었는데, 문어 기반의 분석 틀이 주요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구어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직접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법적 기제를 음성적으로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어와는 다른 속성을 보인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속성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문법 분석의 틀이 제공된다면 언어발달의 주요 지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D. I. Slobin,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85.
- [2] 이영옥, 안승신, 이영숙, *한국 어린이의 언어발달 연구*, 서울: 재단법인 언어교육, 1982.
- [3] 배소영, “학령기아동의 말-언어 장애 진단 및 치료교육”, *언어치료전문요원교육*, 한국언어병리학회 편, 1995.
- [4] 조명환,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5] 조진숙, “3세에서 6세 아동의 발달에 따른 동사어휘특성 및 빈도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6] 서희선, “2-5세 정상 아동의 연결어미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7]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93.
- [8] 정경일 외,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 서울: 박이정, 2003.

- [9] 김영태,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2002.
- [10] R. Owens,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3rd Ed.*, Boston: Allyn and Baccon, 1999.
- [11] 김병균, “국어 기본문형의 연구”, *어문론집*, 26권, 중앙어문학회, 1998.
- [12] A. N. Nipold, L. J. Hesketh, J. K. Duthie, T. C. Mansfield, “Conversational versus expository discourse: A study of syntactic development in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Vol. 48, pp. 1048-1064, 2005.
- [13] 이승복, “언어습득의 책략과 발달 과정”, *새국어생활*, 7권, 1호, pp. 53-79, 1997.
- [14] 이현정, 김영태, 윤희련, “담화유형에 따른 학령기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구문사용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3권, 1호, pp. 103-121, 2008.

접수일자: 2008년 11월 12일

게재결정: 2008년 12월 19일

▶ 장진아(Jin-A Chang)

소속: 나사렛치료교육센터

E-mail: chja814@hanmail.net

▶ 김수진(Sujin Kim)

주소: 151-742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 나사렛대학교

소속: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전화: 041) 570-7978

E-mail: sjkim@kornu.ac.kr

▶ 신지영(Jiyoung Shin)

주소: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 고려대학교

소속: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02) 3290-1973

E-mail: shinjy@korea.ac.kr

▶ 이봉원(Bongwon Yi)

주소: 151-742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 나사렛대학교

소속: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전화: 041) 570-7962

E-mail: cynos@kornu.ac.kr

<부록 1> 연결어미의 의미유형과 접속문의 예

유형(의미)	어미의 종류	예
나열	-고 -(으)며 -(으)면서	어머니가 뜨개질도 하고 라디오도 듣는다. 그는 덕이 있으며 학식이 있다. 영희는 착하면서 예의바르다.
동시	-고 -(으)며 -(으)면서 -고서	아이가 노래하고 피아노를 친다. 엄마를 잃은 아이가 울며 지나간다. 영희가 웃으면서 말한다. 승혜는 눈을 감고서 빌었다
계기	-고 -고서 -(아/어)서 -자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전화를 받고서 밖으로 나갔다. 미혜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 혜는 학교가 끝나자 집으로 왔다.
대립	-고 -(으)며,면서 -(아/어)도 -지만 -(으)나 -는데 -건만	미아는 머리는 좋(으)나, 아도, 지만, 은데, 건만, 으면서) 공부는 못한다. 철수는 눈이 크(고, 며) 영수는 눈이 작다.
이유·원인	-고 -고서 -(아/어)서 -(으)니까 -느라고 -(으)므로 -기에 -자 -는데 -다가	집이 팔리(고, 고서) 아파트를 샀다.  비가 와서 시내가 넘쳤다. 누워서 쉬니까 피로가 가시는 것 같다. 밤늦게 공부를 하느라고 늦잠을 잤다.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줌. 부르는 소리가 나기에 뒤를 돌아보았다. 이웃집 개가 계속 짖자 엄마가 화를 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작하자. 영수는 무리하(다가) 병이 났다.
조건	-면 -거든 -(아/어)야 -다가 -(아/어)도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철수가 오거든 이것을 전해주어라. 노력을 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 누구나 무리하다가는 병이 난다. 지나치게 친절해도 오해를 받는 법이다.
기타 (양보, 설명, 목적, 결과, 선택, 전환, 의문, 비유, 비례)	-아도 -은들 -으니까 -은데 -되 -으려 -고자 -으려고 -게 -도록 -거나 -든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내가 간들 너를 잊겠느냐. 어제 북한산에 가보니까 진달래가 많이 피었지? 어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진짜 재미있더라. 돈을 쓰되 아껴 써야 한다. 나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 나는 공부를 하고자 도서관에 갔다. 나는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갔다. 아이가 울지 않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이가 울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어라.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라. 영화를 보든지 연극을 보아라.

## &lt;부록 2&gt; 내포문(전성어미)의 유형과 발화 예

유형	어미의 종류	발화 예
명사절	-(으)ㄴ -기 -ㄴ/는 것	돈이 많음이 분명해. (가상) 일이 잘 되기를 빌어야지 뭐 (성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5세)
관형절	-ㄴ/는 -르	먹는 음식을 막 버려요. (5세) 졸업식에 입을 옷이에요. (7세)
부사절	-이 -게 -도록	오빠가 말도 없이 떠나 버렸어. (성인) 빵이 맛있게 생겼다. (5세) 선생님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질 않아요. (성인)
서술절	이중주어	개가 키가 커. (성인)
인용절	-고( -라고, -하고)	엄마는 화장하고 어디 간다고 그래서 이거 다 치우고. (3세)